

설 준비, 멀리 가지 마세요! 마포 직거래 장터로 오세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2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민광장에서 '2026년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민에게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넓히는 도·농 상생의 자리로,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직거래장터에는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인천 용진군 등 자매결연 도시 5곳과 MOU 및 특산물 산지 5곳 등 총 10개 단체가 참여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장터에서는 사과, 곶감, 서리태, 알밤, 배추, 팔, 한우, 도라지, 더덕 등 신선한 농·축산물을 비롯해 젓갈류, 김치, 조청, 김부각, 치즈·요거트, 장류, 꿀, 황태, 김류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들 품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설 명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자원봉사캠프 등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바자회도 함께 열린다. 모둠 전, 떡볶이, 순대, 어묵, 식혜 등 명절 먹거리 판매하며, 수익금 일부는 소외 계층에 기부한다.

판매 환경도 강화했다. 생산자 이력 제 운용과 판매 가격·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신뢰도를 높였고, 카드 결제와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도록 해 구민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행사장 내 멀리 부스에는 다회용기를 지원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행사를 운영에도 힘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설을 앞두고 구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부담 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마련했다"라며, "신선한 특산물도 고르고, 바자회 나눔에도 함께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세무 고민 해결! 동작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구 특성을 반영해 '2026 현장에서 답하다!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리분석 및 세무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했으며,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차수별로 진행한다.

1차·2차는 김예림 변호사가 강의를 맡는다. 1차 설명회는 3월 9일 14시 상도4동 주민센터에서, 2차는 3월 10일 16시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며,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권리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3차 설명회는 3월 11일 14시 사당4동 사당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은 장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관련 재개발·재건축 세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해당 지역 조합원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의 주제는 권리분석 및 세무분야로 지역별 궁금증 수요를 정리해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참가 신청은 동작구청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4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빠

르고 편리한 전자고지 신청 ▲지방세 환급금 평생 계좌 등록 ▲동작 마을세무사 제도 ▲재산세 미납알림서비스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 약간 세무행정 상담실 운영 등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세무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번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통해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예기치 않은 지역난방 열수송관 사고에도 공동구 침수로 인한 열 공급 중단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난관리기금 약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난방 열수송관이 설치된 공동구 5곳에 총 61대의 중온수용 배수펌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31대, 목동·상암·은평·마곡, 총 연장 36.45km의 공동구가 있으며, 업무시설 밀집지역과 대구모 주거지역의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중요시설이다.

서울에는 총 8개소(여의도·목동·가락·개포·상계·상암·은평·마곡), 총 연장 36.45km의 공동구가 있으며, 업무시설 밀집지역과 대구모 주거지역의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공동구는 여러 시설이 지하에 접수된 구조로, 침수·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수도·온수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 재난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 열수송관이 파손될 경우, 관 내부에 있던 중온수가 유출돼 시설물 피해를 키울 우려가 크다.

이번 사업은 공동구 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손 시 유출되는 80~100°C의 중온수를 신속히 배출하고 시설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공동구는 전력·통신·수도·가스·지역난방 열수송관 등 필수 기반 시설의 주요 관로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국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구 내부 침수와 전기·통신 설비 손상 위험이 크게 부각됐다.

시는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공동구 내 침수 대응 기능을 근본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설치된 일반 수중펌프는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손 등으로 고온의 중온수가 유출될 경우, 고장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커다. 이에 시는 국내 최초로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중온수용 배수펌프'를 공동구에 설치했다.

시가 설치한 중온수용 배수펌프는 110°C의 뜨거운 물에서도 하루 이상 멈추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고성능 설비다.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로 제작됐으며, 공인기관(한국선급)의 시험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조공장에서 사전 검수를 실시했고,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한 전문가 현장점검 회의를 통해 설계 적정성과 시운전 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난방 열수송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중온수를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침수로 인한 공동구 시설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장성 기자

"설 연휴에도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 '설날 종합대책' 본격 가동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균)는 설 연휴에도 구민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구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를 종합적으로 한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대책 기간 동안 구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안전·교통·청소년·의료 등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는 설 연휴 기간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CCTV 관제를 강화해 주요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한파와 폭설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진료 상황실'도 설치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지난해보다 39개소 늘어난 410개소를 운영하며, 문 여는 약국도 약 284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구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는 '교통 대책 상황실'과 '주차질서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공영주차장과 학교 주차장 등 36개소를 무료 개방해 구민 편의도 높인다. 개방 주차장 현황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는 '교통 대책 상황실'과 '주차질서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공영주차장과 학교 주차장 등 36개소를 무료 개방해 구민 편의도 높인다. 개방 주차장 현황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17일·18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심야에도 빈틈없이... 17, 18일 대중교통 01시까지 운행 연장, 올빼미버스도 정상 운행

올해도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 날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화,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이번 설 명절은 주말 포함 5일(2.14~2.18)간 연후로 평소 설 명절과 비교하여 짧은 연휴는 아니나, 설(2.17) 다음날 연휴가 하루만 있고 연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명절 당일(2.17)과 다음날(2.18)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01시까지 평소 12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기로 했다.

과거 설 명절에는 02시까지 연장 운행하였으나, 01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저조(서울 지하철 1천 명, 시내버스 3천 명)하여 운행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이번 명절부터는 충분한 심야

정비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 차원에서 심야 수요가 있는 01시까지만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17일)과 다음 날(18일)에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도착하도록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연장 운행을 위해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총 128회(일일 64회) 증화 운행한다.

서울 시내버스도 같은 날에 서울 시내 3개 버스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터미널)과 5개 기차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을 경유하는 1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맘우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3개 시내버스 노선(201, 262, 270번)도 설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 운행 횟수를 총 76회(일일 38회) 늘린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약 2주(2.22~2.14)간 수도권 내 장사시설

까지 운행하는 성묘지원버스를 운영 중이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14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IC) 운행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귀성·귀경하는 시민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연장 운행하는 날은 214(토)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18(수)까지로,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18일의 경우 다음날(19일) 새벽 1시까지 운행하고 19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평소 운행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 시간이 조정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며,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 가능하다.

이장성 기자

2025년 사회배려청년 3,328명에 성장사다리 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33명 등 사회배려청년 1,057명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

서울시가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배려청년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사회배려청년 우대 선발' 제도를 추진하여 이뤄낸 변화다. 서울시는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10개 주요 청년정책에서 사회배려청년 3,328명(전체 참여자수의 3.15%)과의 동행을 이루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렸다.

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33명을 포함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 등 1,057명의 사회배려청년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우선 지원받았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생애 1회)하는 사업이다. 이사비 찾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지난해 마음건강 상담이 필요한 사회배려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립·온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배려청년 541명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의 우선 지원을 받은 사회배려청년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통해 이룬 성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여자로 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057명의 사회배려청년을 우선 지원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올부터 청년부상제대군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장성 기자

